

# 대학생의 섭식장애 행동에 관련된 요인\*

## Factors Related to Eating Disorder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기남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영희

Dept. of Food and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Ki Nam*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Yeong Hee*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ody image, body dissatisfaction, and drive for slimness, as mediated by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eating disorder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43 male and 323 female university students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Cheonju. On the basis of previous literature, the theoretical model was specified and estimated for the adequacy of statistical fit for male and female students separately. The proposed theoretical model was supported by the data and fitted adequately. As expected, body image, body dissatisfaction, and desire for thinness had a direct effect on self-esteem for female students. However, whereas body image and body dissatisfaction directly influenced on male students' self-esteem, while desire for gaining weight had no direct effect. Eating disorder behavior in female students was predicted by body dissatisfaction, body image, and self-esteem. For male students, desire for gaining weight and self-esteem strongly predicted eating disorder

Corresponding Author: Yeong Hee Kim, Dept.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an 48 Gaeshindong Heungduk-gu Chungbuk 361-763, Korea Tel: 82-43-261-3147 Fax: 82-43-260-2793 E-mail: enjoy@chungbuk.ac.kr

\* 본 논문은 2002년도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연구지원금에 의해 이루어졌음.

behavior.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fluence of body image, body dissatisfaction, and desire for thinness on eating disorder behavior can be mediated not by depression but by self-esteem.

**주제어(Key Words):** 신체상(body image), 신체불만족(body dissatisfaction), 날씬해지려는 욕구(drive for thinness), 자존감(self-esteem), 우울증(depression), 섭식장애행동(eating disorder behavior)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풍조가 조성되고,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감각적 자극을 끊임없이 접하게 되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고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예전보다 외모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까지 외모 가꾸기 열풍에 휩싸여 무리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로 외모지상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날씬함의 강조와 마르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는 건강한 신체적 기준에 대한 적당한 관심의 수준을 넘어서 마르면 마를수록 더욱 좋다는 식의 강박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황효정, 김교현, 1999). 마른 체형에 대한 사회적 선호 때문에 많은 수의 여성들이 극도로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내재화시킴으로써 실제의 신체상과 불일치가 커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홍은경, 박영선, 신영선, 박혜순, 1995; Ricciardelli, Tate, & Willmams, 1997; Sobra & Geliebter, 2002), 사회적으로 비만에 대한 관심과 날씬함에 대한 압력이 증가되면서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위라는 또 다른 형태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즉 체중조절에 대한 올바른 지식없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시도하고 건강을 해치는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내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이규은, 김남선, 1998; 황란희, 신혜숙, 2000; 최의순, 이규은, 1997), 외모나 체중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여대생들이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여 영양소 섭취가 불량하며, 비타민 A와 C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가 영양권장량의 55-95% 수준이

고, 철분과 칼슘의 섭취량은 권장량의 70% 미만에 불과하여 여대생들에게 중장년기 이후의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극단적인 방법의 다이어트나 장기간 동안의 다이어트로 자신의 신체적 요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폭식행동을 하게 되고, 다시 원래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인 구토를 하며 결국에는 섭식장애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섭식장애는 심각하게 혼란된 섭식행동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는 심리장애로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과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이 이에 포함된다(미국정신의학회, 1995). 섭식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어려움을 가져오고, 식행동이 점점 불규칙해지면서 정신적 부작용도 더욱 심해져, 모든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심각할 경우 생명의 위협까지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섭식장애는 높은 우울수준, 낮은 자아존중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안소연, 1994; Button, Loan, Davies, Sonuga-Barke, 1997), Moore-Striegel, Silberstein, Rodin(1986)은 낮은 자아존중감, 부정적인 신체상 그리고 우울과 같은 정신병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체중을 줄이려는 시도에 선행요인이 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비현실적인 신체지각으로 인한 왜곡된 신체상과 신체불만족, 혹은 마른 것에 대한 욕구는 이상적인 섭식장애 행동을 일으키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Berg, Wertheim, Thompson, & Paxton, 2002).

이와 같이 섭식장애에 관련된 요인은 왜곡된 신체상, 날씬함에 대한 욕구, 신체불만족과 같이 신체상에서 오는 요인과 자아존중감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 요인들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섭식장애에 관련된 예측 요인을 한 연구 모델 안에서 비교연구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Gual, Perez-Gaspar, Marinez-Conzalez, Lahortiga, Delrala-Estevez, & Cervera(2002)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은 섭식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섭식장애 행동에 관한 개입은 결과보다는 원인을 접근하는 개입방식이 더 쉽고, 임상현장에서도 치료적 접근을 시도할 때 자존감이나 우울증 치료를 우선 시도하게 되어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은 위험요인이 되는 동시에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Berg et al., 2002). 더욱이 Leonard, Steiger, Kao(2003)는 아동기에 성학대를 받은 여성들은 낮은 자존감이나 적응적 기제에 문제를 가져서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밝혀내면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이 섭식장애를 중재시키거나 매개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선행연구는 신체불만족도 수준이 높거나 신체모양과 체중에 과도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섭식장애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Button et al., 1997; Button, Sonuga-Barke, Davies, & Thompson, 1996; Canals, Carbajo, Geller, Fernandez, Marti-Henneberg, & Domenech, 1996; Lilenfeld, Kaye, Greeno, Merikangas, Plotnicov, Pollice, Rao, Strober, Muilk, & Nagy, 1998; Geller, Cockell, & Goldner, 2000; Neumark-Sztainer, & Hannan, 2000). Koenig과 Wasserman(1995)은 메타분석을 통하여 신체유형만족도와 신체상이 여성들의 섭식장애를 21% 내지 32%를 설명해주고 있음을 밝혀내면서 이러한 현상은 8살에서 70살까지의 여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Cooper와 Fairburn(1993)이 신체불만족도와 체중과 신체모양의 과도한 관심사인 신체상 사이에 용어의 모호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이래 학자들은 섭식장애 행동에 관련된 신체적 요인은 다차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Sands(2000)는 신체상과 날씬함의 욕구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신체상은 자신의 신체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적인 요소인 반면 신체불만족도는 신

체의 어느 특정 부위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정서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체상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와 체중에 대한 과도한 관심사의 차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면서 신체상과 날씬함에 대한 욕구를 서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임상연구에서 신체불만족도와 신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울수준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인다(van Strien, 1996). 신체불만족도는 우울증과 자아존중감의 변화 모두에 관련성이 있으나(Tiggemann, 1996), 신체에 대한 자아평가인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의 변화와는 일관적인 상관관을 보이는 반면 우울증과는 부분적인 상관관을 보여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다(Slade, 1994). 특히 체중에 관한 평가나 날씬함에 대한 욕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울증과 전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불만족도가 신체상이나 날씬함에 대한 욕구보다 더 안정적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최근 연구가 신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신체상보다 신체불만족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Sands, 2000).

그러나 Masheb & Grilo(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섭식장애에 관련된 용어의 모호함은 신체요인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여 한 연구 안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비교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신체상과 신체불만족도, 그리고 심리적인 특성들이 섭식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왔으나, 심리적인 특성을 매개로 섭식장애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한 모델 안에서 비교분석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신체에 대한 관심이 여성에게만 집중이 되어 나타났던 과거와 달리,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남성들도 근육질의 이상적인 체형을 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나 바디빌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남성에게도 유행이 되고 있는데도(Braun, Sunday, Huang, & Halmi, 1999) 불구하고 신체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이

론적 모델의 검증을 통하여 신체상, 신체불만족도, 낯선함에 대한 욕구 등이 자존감이나 우울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섭식장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성에 따라 살펴보아 섭식장애에 관련된 요인을 밝혀내고, 섭식장애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영양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현장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가설적 연구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가설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가설 1. 신체상은 자존감과 우울증, 그리고 섭식장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과 우울증을 통하여 섭식장애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신체불만족도는 자존감과 우울증, 그리고 섭식장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과 우울증을 통하여 섭식장애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낯선함에 대한 욕구는 자존감과 섭식장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을 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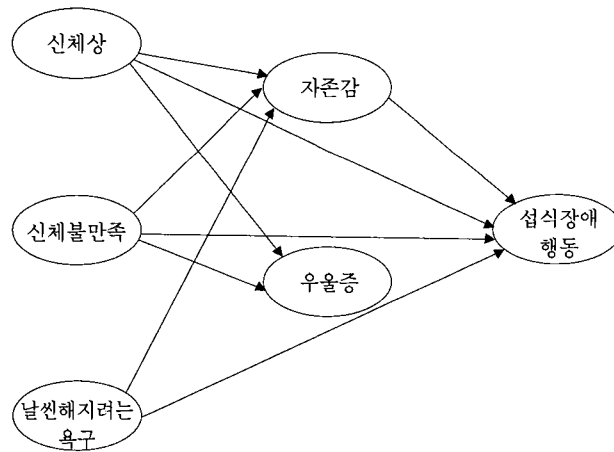
여 섭식장애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자존감과 우울증은 섭식장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C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학생들이 질문지를 완성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이 중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하고 566부를 최종적으로 연구에 이용하였다. 예비조사는 2002년 9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되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본조사는 2002년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이 43.2%, 여학생이 56.8%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7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4학년(12.5%), 2학년(9.1%), 3학년(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전공은 인문계열이 40.2%, 자연계열이 22.8%, 의학계열 1.4%,



<그림 1> 이론적 연구모델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자	243(43.2)	전공	인문계열	224(40.2)
	여자	320(56.8)		자연계열	127(22.8)
	계	563(100.0)		의학계열	8(1.4)
나이	10대 후반	365(64.7)		사범계열	41(7.4)
	20대 초반	171(30.3)		공학계열	157(28.2)
	20대 중반	28(5.0)	계		557(100.0)
	계	564(100.0)			
종교	기독교	150(26.6)	학년	1학년	411(73.3)
	천주교	46(8.2)		2학년	51(9.1)
	불교	106(18.8)		3학년	29(5.2)
	무교	261(46.3)		4학년	70(12.5)
	계	563(100.0)		계	561(100.0)

사범계열 7.4%, 공학계열 28.2%의 분포를 보였다. 종교를 살펴보면, 46.3%가 종교를 갖지 않았고, 기독교(26.6%), 불교(18.8%), 천주교(8.2%)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신체상

신체상은 Cash & Pruzinsky(1990)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해 제작한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외모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 지각능력, 건강상태, 운동능력, 성적 매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6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Sands(2000)가 지적한바와 같이 신체상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적 요소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외모평가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는 내 체형을 싫어한다.' '나는 신체적인 매력이 부족하다.'와 같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임을 의미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는 .79이었다.

2) 신체불만족

신체불만족도는 Ben-Tovim Walker Body Attitude Questionnaire(Ben-Tovim & Walker, 1991)를 번안·수정하여 자신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한 불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각 신체영역별(예: 얼굴생김새, 머릿결, 다리 등)에 대한 불만족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alpha$ 는 .88이었다.

3) 날씬해지려는 욕구

날씬해지려는 욕구는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Fitzgibbon et al., 2003; Sands, 2000) 실제 자신의 체중에서 이상적으로 원하는 체중을 뺀 것으로 측정한다. 현재체중과 이상체중의 차이 점수가 마이너스 점수이면 체중 증가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차이점수가 플러스 점수이면 날씬함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의미한다. 절대값이 클수록 욕구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79)가 제작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신체유형 만족감이나 신체존중감에 대한 하위척도나 항목을 포함하지 않아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4점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10점~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83이었다.

5) 우울증

우울증은 정서적, 인지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수정판(Beck, 1978)을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도에 따라 기술되어 있는 4개의 보기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

의 점수가 주어지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높음을 의미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는 .88이었다.

#### 6) 섭식장애행동

섭식장애행동은 Garner, Olmsted, Bohr, & Garfinkel(1982)가 간략형으로 제작한 Eating Attitudes Test(EAT)와 Pyle, Mitchell, Eckert, Halvorson, Neuman, & Goff(1983)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중 DSM-IV의 진단기준을 토대로 정호선(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 문항으로 6점 리커트 척도화하여 측정하였고('전혀 아니다'의 0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점수가 높을수록 섭식행동이 손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9이었다.

### 3. 자료분석

최종적으로 이용된 설문지 자료로 SPSSWIN 프로그램과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VIII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고, 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LISRELVIII을 이용한 경로 분석을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성에 따른 일반적 특성 차이

조사대상자의 현재 체중과 신장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중과 신장은 <표 2>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현재체중과 이상 체중의 차이가 -72kg으로, 남학생은 현재보다 체중을 더 증가시키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여학생은 현재체중과 이상체중의 차이가 3.33kg으로 나타나 날씬함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장에 있어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현재 자신의 키보다 더 크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른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지수는 차이가 있다(표 3). 남학생의 절반이상은 정상 체중(59.3%)이며, 그 다음이 저체중(29.3%), 과체중(10.7%), 비만(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표 2> 성에 따른 체중과 신장

	현재 체중(kg)	이상 체중(kg)	현재 신장(cm)	이상 신장(cm)
남학생	66.90±9.74	67.62±6.08	175.02±5.16	179.49±3.95
여학생	52.02±6.30	48.69±4.04	161.89±4.89	165.49±3.22

주) 평균±표준편차

<표 3> 성에 따른 BMI(Body Mass Index)

성별	BMI 지수				전체	N(%)	$\chi^2$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남학생	71(29.3)	144(59.3)	26(10.7)	2(0.8)	243(100.0)	51.83***	
여학생	174(57.4)	121(39.9)	6(2.0)	2(0.7)	303(100.0)		
전체	245(44.9)	265(48.5)	32(5.9)	4(0.7)	546(100.0)		

\*\*\*p<.001

주) BMI지수 = 체중(kg)/신장(m)<sup>2</sup>

20미만: 저체중      20-24.9: 정상체중  
25-29.9: 과체중    30이상: 비만

경우 절반이상이 저체중(57.4%)이며, 정상체중이 39.9%를 차지하고, 과체중(2.0%)과 비만(0.7%)은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즉, BMI 지수에서는 남학생은 정상체중이 여학생은 저체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라 자신이 지각하는 체중과 체형의 차이, 그리고 다이어트 경험유무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남학생들의 경우 절반 정도가 자신의 체중과 체형을 정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고(50.6%, 49.0%), 체중과 체형의 비율 차이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52.1%가 자신의 체중을 정상체중이라고 지각하는 반면 52.8%가 자신의 체형을 살찐 체형이라고 여겨 체중과 체형의 비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실제 체중과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지체중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Fitzgibbon, Sanchez-Johnson, & Martinovich (2003)의 보고와 일치한다.

성에 따라 다이어트 경험유무에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들은 대다수가 다이어트 경험이 없었으며(83.8%),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이어트 경험 유무가 각각 42.8%, 57.2%로 서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이상적인 체중과 체형을 위

한 노력을 남학생들보다 더 많이 한다는 이란(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2. 성에 따른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된 요인: 구조방정식모델

성에 따른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남학생의 경우 .20에서 .69, 여학생의 경우에는 .13에서 .66의 범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의 이론적 연구모델을 기초로 성에 따른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의 구조방정식모델이 적합한지를 추정한 결과 여학생은  $\chi^2=3.50(p>.05, df=2)$ , 남학생은  $\chi^2=2.37(p>.05, df=2)$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chi^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가설적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의 구조방정식모델에 대한  $\chi^2$ 검증은 자료가 이론적 모델을 지지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표 4> 성에 따라 자신이 지각하는 체중과 체형, 그리고 다이어트 경험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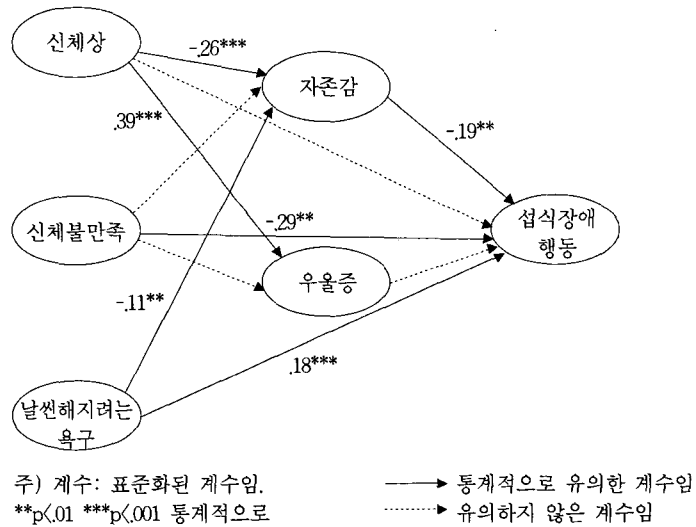
구분	성별		전체	$\chi^2$
	남학생	여학생		
체중	저체중	66(27.2)	42(13.3)	20.81***
	정상체중	123(50.6)	164(52.1)	
	과체중	54(22.2)	109(34.6)	
전체		243(100.0)	315(100.0)	558(100.0)
체형	마른체형	66(27.2)	38(11.9)	52.20***
	정상체형	119(49.0)	112(35.2)	
	살찐체형	58(23.9)	168(52.8)	
전체		243(100.0)	318(100.0)	561(100.0)
다이어트 경험유무	경험있음	39(16.2)	136(42.8)	44.68***
	경험없음	201(83.8)	182(57.2)	
	전체	383(100.0)	175(100.0)	

\*\*\*p<.001

〈표 5〉 성에 따른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된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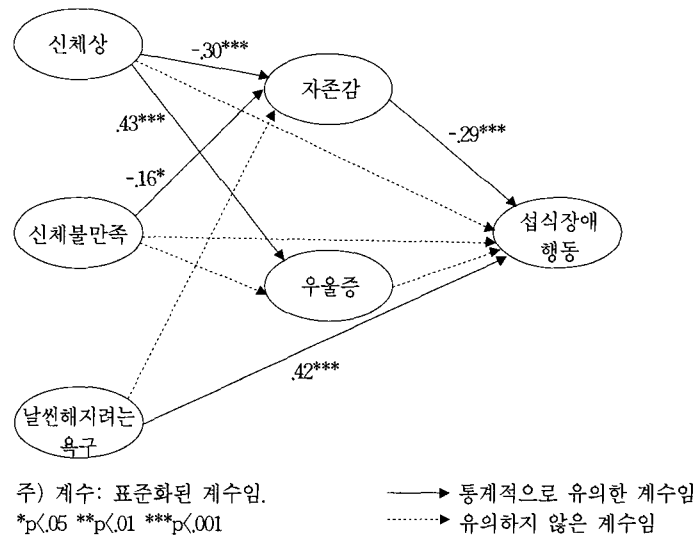
변인	구분	신체상	신체 불만족	날씬해지려는 욕구	자존감 행동	우울증	섭식장애
신체상	남학생						
	여학생						
신체불만족	남학생	.69***					
	여학생	.66***					
날씬해지려는 욕구	남학생	.20**	.12				
	여학생	.27***	.33***				
자존감	남학생	-.43***	-.36***	-.07			
	여학생	-.45***	-.43***	-.06			
우울증	남학생	.35***	.43***	.03	-.53***		
	여학생	.33***	.39***	.13*	-.51***		
섭식장애행동	남학생	.05	-.03	.41***	-.21*	.01	
	여학생	.32***	.36***	.27***	.29**	.17***	
평균	남학생	1.42	1.39	-.66	3.03	1.32	1.64
	여학생	1.63	1.63	3.66	3.04	1.42	1.86
표준편차	남학생	.53	.57	7.22	.47	.33	.42
	여학생	.47	.44	4.43	.41	.30	.39

\*p<.05 \*\*p<.01 \*\*\*p<.001



〈그림 2〉 여학생의 구조방정식 모델





〈그림 3〉 남학생의 구조방정식 모델

있다.

또한 적합도 지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GFI, AGFI, NFI의 지수가 .90이상 그리고 RMSR의 지수는 .05이하일 때 바람직하다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Maruyama, 1998),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여학생은 GFI=1.00, AGFI=.96, NFI=.99, RMSR=.02, 남 학생은 GFI=1.00, AGFI=.97, NFI=.99, RMSR=.02로  $\chi^2$ 값을 포함한 다른 적합도 지수 모두 이 기준에 부합되므로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이론적 모델의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학생과 남학생 두 모델의 구조방정식 모델은 〈그림 2〉와 〈그림 3〉과 같으며 그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여학생의 모델을 살펴보면, 신체상은 자존감( $\gamma = -.26$ )과 우울증( $\gamma = .39$ )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섭식장애 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상은 자존감을 통해 섭식장애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 $\beta = .05$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우울 수준은 높아지며, 부정적인 신체

상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면 섭식장애 행동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연구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의 변화와는 일관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면 우울증과는 부분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Slade, 1994). 또한 신체상은 섭식장애와 많은 관련성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Carr-Nagle et al., 1994)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과 섭식장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신체불만족은 자존감( $\gamma = -.29$ )과 섭식장애 행동( $\gamma = .19$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을 통하여 섭식장애 행동( $\beta = .25$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신체불만족도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면 섭식장애 행동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가 신체불만족도와 우울증과는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비해(Tiggemann, 1996; Norton & Olds, 1996) 본 연구에서는 신체불만족도가 우울증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는 연구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표 6〉 성에 따른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의 직접·간접 효과

성별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종속변인
여학생	신체상	-26	·	-26	자존감
		.39	·	.39	우울증
		·	.05	.05	섭식장애행동
	신체불만족	-29	·	-29	자존감
		.19	.06	.25	섭식장애행동
	날씬해지려는 욕구	-11	·	-11	자존감
.18		.02	.20	섭식장애행동	
자존감	-19	·	-19	섭식장애행동	
남학생	신체상	-30	·	-30	자존감
		.43	·	.43	우울증
		·	.09	.09	섭식장애행동
	신체불만족	-16	·	-16	자존감
		·	.05	.05	섭식장애행동
	날씬해지려는 욕구	.42	·	.42	섭식장애행동
-29		·	-29	섭식장애행동	

여학생의 날씬해지려는 욕구는 자존감과 섭식장애 행동(각각  $\gamma = -.11$ ,  $\gamma = .18$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존감을 통하여 섭식장애 행동( $\beta = .02$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은 이상적인 체중이 자신의 현재 체중보다 적게 나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날씬함에 대한 욕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섭식장애 행동이 높아지며, 낮은 자존감은 더 많은 섭식장애 행동을 일으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연구가설 3을 지지해 주고 있고, 날씬해지려는 욕구는 자존감과 섭식장애 행동과 각각 관련성을 가진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Sands & Maschette, 1999).

심리적 특성 중 자존감( $\gamma = -.19$ )만이 여학생의 섭식장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자존감이 높을수록 섭식장애 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우울증과 섭식장애는 관련성이 없어 본 연구결과는 연구가설 4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남학생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상은

자존감( $\gamma = -.30$ )과 우울증( $\gamma = .43$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섭식장애 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을 통해 섭식장애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 $\beta = .09$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자존감은 높아지고, 동시에 우울증은 낮아지며, 또한 자존감을 매개로 섭식장애 행동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연구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남학생의 신체불만족은 자존감( $\gamma = -.16$ )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을 통하여 섭식장애 행동( $\beta = .05$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을 통해서 섭식장애 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남학생의 날씬해지려는 욕구가 섭식장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섭식장애 행동( $\gamma = .42$ )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중이 자신의 현재

체중보다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체중을 더 나가게 하려는 열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섭식장애 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가설 3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체중에 대한 관심이 섭식장애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Davison, Markey, & Birch, 2002).

남학생의 자존감( $\gamma = -.29$ )은 섭식장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자존감이 높을수록 섭식장애 행동이 줄어듦을 의미하며, 본 연구 결과는 연구가설 4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체중과 신체유형에 대한 자아인식은 성에 따라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체중에 대한 관심이나 날씬함에 대한 욕구를 현재체중과 이상체중의 차이로 보고있는데(Sands & Maschette, 1999) 대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현재체중과 이상체중의 차이가 0.11 단위 대 0.49로 나타나고 있다(Berg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차이 비율이 1대 5.62로 나타나 선행연구보다 더 큰 비율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 비율은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적 조류가 더 급속히 일어남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여학생은 날씬함에 대한 욕구가 큰 반면 남학생은 체중을 증가시키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이 체중을 늘리고자 하는 바람은 결국 자신의 체형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신체적으로 더 강해지고 근육질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Button, Loan, Davies, & Sonuga-Barke(1997)의 주장을 본 연구는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남학생의 구조적 모델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신체상이나 신체불만족도는 섭식장애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비해 체중을 늘리고자 하는 욕구는 섭식장애에 매우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라 체중과 체형, 다이어트 경험에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체중과 체형을 매우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 자신의 체중과 체형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

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체중과 체형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부적절한 방식의 다이어트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로까지 부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Ohring, Graber, & Brooks-Gunn(2002)가 장기적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8살에서 70살까지의 여성 50%가 체중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너무 어린 나이에부터 시작했거나 체중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되면 나이 든 후에 비만이나 과체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이어트에 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Berg 등(2002)의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자아존중감이 섭식장애를 직접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만이 섭식장애에 관련된 심리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상집단 연구에서는 섭식장애 행동을 보이는 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체중과 체형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신체불만족도와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utton et al., 1996; Neumark-Sztainer & Hannan, 2000; Petrie, 1993; Turner & Hamilton, 1997).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직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섭식장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 내지 못하고 있다.

우울증은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보다 결과가 될 수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Cooper & Fairburn(1993)의 연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섭식장애 행동을 보이는지 혹은 섭식장애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Koening et al., 1995). Gual 등(2000)은 임상집단의 사람들이 섭식장애 행동을 한 다음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섭식장애 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을 때 간식이나 식사를 1시간 더 빠르게 섭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회고적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어 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Geller et al., 2000). 우울증이 섭식장애의 원인변인인지 결과변인

인지를 밝히는 것은 섭식장애 행동을 예방하고 개입 하는데 중요한 기제가 되므로 미래 연구는 이에 대한 관련성을 좀 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신체불만족도는 실제 신체 크기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지만 신체상은 이상적 외형이나 체중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체불만족도가 신체상보다 섭식장애에 더 많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Muir, Werthein, & Paxton(1999)의 연구를 본 연구의 여학생 모델 검증 결과가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섭식장애를 가진 집단의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실제 크기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커 날씬함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는 Masheb & Grilo(2003)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와 달리(Button et al., 1996) 신체상이나 신체불만족도는 섭식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고, 체중증가에 대한 관심만이 섭식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학생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신체상과 신체불만족도는 자존감을 거쳐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신체불만족도와 날씬해지려는 욕구가 섭식장애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신체상, 신체불만족도, 날씬해지려는 욕구가 자존감을 매개로하여 섭식장애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Leonard와 그의 동료들(2003)이 제안한 것처럼 개인의 심리적 특성요인인 자존감이 섭식장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변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섭식장애와 관련된 영양교육이나 상담을 할 경우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 우선 되어야 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해주고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여학생은 날씬함에 대한 욕구가 큰 반면 남학생은 체중을 더 증가시키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2. 성에 따라 BMI 지수, 체중과 체형,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BMI 지수로 남학생은 절반이상이 정상체중에 속해 있었고, 여학생은 절반이상이 저체중에 속해있었다. 남학생은 자신의 체중과 체형을 거의 비슷하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자신의 체중과 체형을 다르게 인식하였다. 남학생은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학생은 절반정도의 학생이 다이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여학생의 경우 신체불만족도, 신체상, 날씬해지려는 욕구 순으로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존감이 섭식장애 행동에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우울증은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학생의 섭식장애에 관련된 예측 요인은 신체불만족도, 날씬해지려는 욕구, 자존감, 신체상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상은 간접적인 영향력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남학생의 경우 신체상과 신체불만족도가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섭식장애 행동에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울증은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섭식장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체중증가에 대한 욕구와 자존감으로 나타났다. 신체상이나 신체불만족도는 섭식장애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고 자존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만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신체상, 신체불만족도, 날씬함에 대한 욕구는 섭식장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뿐아니라 자아존중감과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짐을 본 연구는 보여주었다.

#### ■ 참고문헌

안소연(1994). 폭식행동집단의 신체불만족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규은, 김남선(1998). 여대생의 섭식장애와 신체증상, 기분상태간의 상관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3), 388-401.
- 이란(2001). 대학생의 신체적 자아개념 및 강박증과 섭식장애 행동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5(4), 387-402.
- 최의순, 이규은(1997). 여성의 체형과 신체상, 건강문제 호소간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3(2), 169-179.
- 황란희, 신혜숙(2000). 여고생의 섭식장애와 신체상,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1), 129-139.
- 홍은경, 박영선, 신영선, 박혜순(1995). 일부 도시 여중고생의 신체상에 대한 인지와 체중조절 형태. *가정의학회지*, 16, 569-574.
- 황효정, 김교현(1999). 인지-행동 프로그램과 명상훈련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신체상 불만족과 폭식의 개선 및 체중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4(1), 140-15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eck, A.T. (1987).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Quarterly*, 1, 5-37.
- Ben-Tovim, D.I., & Walker, K. (1991). The development of the Ben-Tovim Walker Body Attitudes Questionnaire(BAQ): A new measure of women's attitudes towards their bodies. *Psychological Medicine*, 21, 775-784.
- Berg, P., Wertheim, E. H., Thompson, J. K., & Paxton, S.J. (2002). Development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dolescent females: A replication using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 an Australian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32, 46-51.
- Braun, D. L., Sunday, S. R., Huang, A., & Halmi, K. A. (1999). More males seek treatment for d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0, 415-424.
- Button, E.J., & Sonuga-Barke, E.J.S., & Davies, J., & Thompson, M (1996). A prospective study of self-esteem in the prediction of eating problems in adolescent schoolgirl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35, 193-203.
- Button, E.J., Loan, P., Davies, J., & Sonuga-Barke, E.J (1997). Self-esteem, eating problem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cohort of schoolgirls aged 15-16: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1, 39-47.
- Canals, J., Carbajo, G., Fernandez, J., Marti-Henneberg, C., & Domenech, E. (1996). Biopsychopathologic risk profile of adolescents with eating disorder symptom. *Adolescence*, 31, 443-450.
- Carr-Nangle, R., Johnson, W., Bergeron, K., & Nangle, D, (1994). Body image changes over the menstrual cycle in normal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6, 267-273.
- Cash, T.F., & Pruzinsky, T. (1990).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oper, P.J., & Fairburn, C.G. (1993). Confusion over the core psychopathology of bulimia nervosa.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3, 385-389.
- Davison, K.K., Markey, C.N., & Birch, L.L. (2003).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patterns in girls' weight concerns and body dissatisfaction from ages 5 to 9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32, 320-332.
- Fitzgibbon, Lisa, A.P., Sanchez-Johnson., & Zoran Martinovich. (2003). A test of the continuity perspective across bulimic and binge eating pathology. *International Eating Disorder*, 34, 83-

- 97.
- Garner, D.M., Olmsted, M.P., Bohr, Y., & Garfinkel, P.E. (1982). The eating attitudes test: Psychometric features and clinical correlates. *Psychology Medicine*, 12, 871-878.
- Geller, J., Stikameswaran, S., Cockell, S.J., & Zaitsoff, S.L. (2000). The assessment of shape and weight-based self-esteem i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8, 339-345.
- Gual, P., Perez-Gaspar, M., Martinez-Gonzalez, M.A., Lahortiga, F., De Irala-Estevez, J., & Cervera, S. (2002). Self-esteem, personality, and eating disorders: Baseline assessment of a prospective population-based cohort.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 261-273.
- Koenig & Wasserman, L., & Wasseman, E. (1995). Body image and dieting failure in college men and women: Examining links between depression and eating problems. *Sex Roles*, 32, 225-249.
- Leonard, S., Steiger, H., Kao, A. (2003). Childhood and adulthood abuse in bulimic and nonbulimic women: Prevalences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32, 397-405.
- Lilenfeld, L.R., Kaye, W.H., Greeno, D.G., Merikangas, K.R., Plotnicov, K., Pollice, C., Rao, R., Strober, M., Bulik, C.M., & Nagy, L. (1998). A controlled family study of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Psychiatric disorders in first-degree relatives and effects of problem comorbidit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5, 603-610.
- Maruyama, G. M. (1998). *Ba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Masheb, R.M., & Grilo, C.M. (2003). The nature of body image disturbance in patients with binge eating disorder. *International Eating Disorder*, 33, 333-341.
- Moore-Striegel, R. H., Silberstein, L. R., & Rodin, J. (1986). Toward and understanding of risk factors for bulimia. *American Psychologist*, 41, 246-263.
- Muir, S.L., Wertheim, E.H., & Paxton, S.J. (1999). Adolescent girl's first diets: Triggers and the role of multiple dimensions of self-concept. *Eating Disorders. The Journal of Treatment and Prevention*, 7, 259-270.
- Neumark-Sztainer, D., & Hannan, P.J. (2000). Weight-related behaviors among adolescent girls and boy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4, 569-577.
- Norton, K., & Olds, T.(Eds.). (1996). *Anthropometrica*.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ress.
- Ohring, R., Graber, J.A., & Brooks-Gunn, J. (200). Girls' recurrent and concurrent body dissatisfaction: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ver 8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 404-415.
- Pyle, R.L., Mitchell, J.E., Eckert, E.D., Halvorson, P.A., Neuman, P.A., & Goff, G.M. (1983). The incidence of bulimia in freshma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 75-85.
- Ricciardelli, L.A., Tate, D., & Williams, R.J. (1997). Body dissatisfaction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restraint and bulimic eating patterns. *Appetite*, 29, 43-54.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ands, R. (2000). Reconceptualization of body image and drive for thinness. *International eating disorders*, 28, 397-407.
- Sands, R., & Maschette, W. (1999). Body image measurement: Digital image protocol. *Body Image and Health*, 7, 78-88.
- Slade, P.D. (1994). What is body image? *Behavior*

- Research and Therapy*, 32, 497-502.
- Sobra, M., & Geliebter, A. (2002). Body image disturbance in obese outpatients before and after weight loss in relation to race, gender, binge eating, and age of onset of obe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31, 416-423.
- Tiggemann, M.(1996). "Thinking" versus "feeling" fat: Correlates of two indices of body image dissatisfaction.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8, 21-25.
- Turner, S., & Hamilton, H. (1997). The Influence of fashion magazines on the body image satisfaction of college women: An exploratory analysis. *Adolescence*, 32, 603-614.
- van Strien, T. (1980).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ing and "obese" and bulimic eating pattern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9, 83-92.

---

(2003년 8월 30일 접수, 2003년 12월 31일 채택)